

[www.bsm.or.kr](http://www.bsm.or.kr)

2017년 가을호 • 통권11호



아름다운 만남  
행복한 동행



부산가톨릭의료원  
BUSAN ST. MARY'S HOSPITAL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 사랑은 마음의 얼굴

오 로베르따 수녀

사랑은 마음의 밭에서  
피어나는 꽃이기에  
사랑만큼 아름다운 것 없고

사랑은 마음의 산에서  
자라나는 나무이기에  
사랑만큼 순수한 것 없다.

사랑은 마음의 강에서  
뛰노는 물고기이기에  
사랑만큼 자유로운 것 없고

사랑은 마음의 바다에서  
떠도는 배이기에  
사랑만큼 넓은 것 없다

사랑은 마음의 하늘에서  
오가는 구름이기에  
사랑만큼 여유로운 것 없으며

사랑은 마음의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에  
사랑만큼 선선한 것 없기에

사랑은 마음의 얼굴이다.



# CONTENTS

- |                           |                                               |
|---------------------------|-----------------------------------------------|
| 02                        | 권두 이야기<br>사랑은 마음의 얼굴                          |
| <br><b>팀원들의 이야기</b>       |                                               |
| 04                        | ① 조기 진단이 어려운 폐암의 최신 치료 / 최영미 호흡기내과            |
| 08                        | ② 토요일은 음악봉사하는 날 / 김혜진 자원봉사자                   |
| 10                        | ③ 마지막 소원 The Last Wish / 강동일 비뇨기과 · 가정호스피스 과장 |
| <br><b>환자와 가족의 사랑 이야기</b> |                                               |
| 11                        |                                               |
| 12                        |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의 이모저모                             |
| 13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NEWS                             |
| 14                        | 후원회 가입 안내                                     |
| 15                        | 이용 안내                                         |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무엇인가?**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 및 통증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 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돋습니다.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 봉사자 등으로 이루어진 완화의료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 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 조기 진단이 어려운 폐암의 최신 치료

최영미  
호흡기내과



국가암정보센터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사망자의 27.8%가 암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암의 발생률은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의 순서이며, 이 중 폐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43.9명으로서, 65~79세에 가장 발생률과 유병률이 높습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 순서로서, 남녀 모두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폐암은 초기에 뚜렷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진단 당시에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아서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 원인

폐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는 흡연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내 남성의 흡연율은 1998년 63.4%에서 2013년 38.1%로 줄어들었고, 이에 따른 영향인지 남성의 폐암 발생률과 사망률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비해 여성 흡연율은 약 5%로 변화가 없는데도, 여성의 폐암 발생률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간접 흡연이나 요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나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발암물질 등이 연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흡연 외에 간접 흡연이 미치는 영향을 볼 때 금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배 40갑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을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은 약 20배에 이릅니다.



## 사망률 1위 암 중 폐암

여기서 흡연력이란 하루 한갑을 40년 피었을 경우 40갑년으로 계산하며, 하루 2갑씩 20년 피었을 경우에도 동일한 40갑년으로 계산합니다.

금연을 통해 폐암 발생 위험성은 크게 떨어지지만, 담배를 전혀 핀 적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폐암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흡연력이 있을 경우에는 폐암 발생에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흡연 외에 방사선을 많이 쪄거나, 석면, 비소, 크롬, 니켈 등 유독성 화학물질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직업 · 환경적 위험 요인이나 미세먼지와 공기오염물질, 유전적인 요인, 폐섬유화, 만성폐질환도 폐암 발생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상

폐암 발생 초기에는 특별한 임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 진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임상 증상으로는 기침이 가장 흔하며, 그 외 객혈, 흉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지만, 증상이 발현될 때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3주 이상 기침을 하고 폐암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을 경우 흉부 사진을 찍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팀원들의 이야기 ①

진단

조기 진단을 위한 노력으로, 폐암의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특히 55세 이상 나이에 하루 한갑씩 30년 이상 흡연하였고 금연한 지 1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특별한 임상 증상이 없더라도 저선량 흉부 CT 검사와 객담 임세포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암 진단을 위해서는 영상 검사가 필수적인데, 일반 단순흉부촬영의 경우, 폐 가장자리에 발생한 폐암의 경우에는 잘 관찰되지만, 폐 중심부에 발생할 경우에는 가슴 가운데 있는 종격동 구조물과 심장 및 심장에서 나오는 큰 혈관들과 겹쳐 보여 폐암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흉부 CT는 이러한 한계점을 피할 수 있지만, 높은 방사선량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폐암 선별을 위한 CT로는 방사선양이 적은 저선량 흉부 CT를 권장하며, 이미 흉부사진에서 폐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영제를 이용한 흉부 CT를 권장합니다.

폐암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폐조직검사를 시행해야 하고, 종양의 위치에 따라 조직검사를 위한 접근방법이 달라집니다. 폐 가장자리에 종양이 있을 경우에는 바늘로 피부를 뚫고 폐종양까지 삽입하여 조직을 채취하는 경피적 흡인생검검사를 시행하며, 폐 중심부에 있거나 기관지를 침범한 종양일 경우에는 기관지내시경을 통해 조직검사를 시행합니다.

폐암으로 확진되면,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PET-CT, 기관지내시경검사, 종격동내시경검사, 방사선텍스캔 같은 추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이며  
55세 이상, 30갑년 이상의 고흡연자로  
금연한 지 1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조기 진단을 위한 정기 검사 필요



## 치료

폐암은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소세포폐암과 비소세포폐암으로 분류됩니다. 국내에서는 선암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편평상피세포암과 소세포암이 차지합니다.

소세포폐암은 폐암이 한쪽 흉곽 내에만 존재하고 주변 림프절에만 전이된 단계(limited stage)와 이러한 범위를 넘어선 단계(extensive stage)로 분류하며, 소세포폐암의 경우에는 아무리 작은 폐암이라도 수술보다는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소세포폐암은 선암, 편평상피세포암, 대세포암으로 분류되며, 종양의 크기와 위치 및 주변 장기 침범 정도, 림프절 침범 정도, 원격 전이에 따라 TNM 분류후에 1기~4기까지 단계가 나누어집니다. 이 중 1기와 2기는 수술이 가능하지만, 1기와 2기 단계에서 폐암이 진단될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3기도 림프절 전이 정도에 따라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진단 당시에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항암화학요법의 경우 빠르게 성장분열하는 암세포를 죽일 목적으로 투약하지만, 정상세포에도 독성을 미치기 때문에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이 많아 탈모, 오심, 구토, 식욕부진, 체중감소가 동반되고 항암치료를 이겨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전자변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항암표적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고, 이들 표적치료제는 기존 항암제와 달리, 암세포의 성장이나 생존과 관련된 단백질과 유전자만 공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표적치료제 외에 면역치료제도 개발되고 있어, 폐암에 대한 약물 치료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예후

폐암은 조기 진단이 어려워 수술을 통한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예후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소세포폐암의 경우 초기 단계 즉, 한쪽 폐에 국한된 경우에 항암치료를 했을 때 평균 중앙 생존 기간이 15~20개월이며, 5년 생존율은 10~13%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된 상태의 소세포폐암인 경우에는 평균 중앙 생존기간이 8~13개월이며, 5년 생존율이 1~2%에 불과합니다.

비소세포폐암의 경우에도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통계가 다르고, 단지 추정치일 뿐 정확한 생존율을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외국의 경우 1단계는 5년 생존율이 약 50%, 2단계는 약 30%, 3단계는 약 15%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외국에 비해 유전자변이가 많은 편이라, 표적치료제 효과가 더 좋으며, 따라서 생존율도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폐암은 조기 진단이 어려워, 암 사망률 1위의 질환입니다. 흡연이 가장 큰 원인으로 55세 이상, 30갑년 이상의 고흡연자로서 금연한 지 1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기 진단을 위한 정기 검사를 권합니다. 최근에는 표적치료제와 면역치료제같은 새로운 항암제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으므로, 과거에 비해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격 전이된 말기 폐암이거나, 전신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무리한 항암치료보다는 보조적 완화치료를 권합니다.

# 토요일은 음악봉사 하는 날

글 | 김혜진 자원봉사자

토요일은 음악봉사를 하는 날입니다. 함께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하는 토요팀 형제 자매님도 볼 수 있고 저의 부족한 봉사를 예쁘게 봐 주시는 하느님께서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게 해주시며, 음악으로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실지 설레기도 합니다.

제가 호스피스 봉사를 하게 된 계기는 그동안 직장 생활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주위의 모든 분들이 무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하여 부족하지만 나도 어려운 이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면 마음이 참 기쁠 것 같아 시작하였는데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였지만 막상 환자들을 대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쳤고 저의 짧은 지식과 봉사 정신만으로는 부족하여 한숨 짓다가,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마음 먹고 조용한 병실에 음악이 있으면 좋겠다싶어 조심스레 플루트로 성가를 부르며 음악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음악전공자는 아니지만 미혼 때 취미로 플루트를 시작한 것이 지금은 저한테 소중한 자산같기도 하고 잘 배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처음엔 플루트로 성가를 부르며 시작했던 것이 지금은 어엿한 형제님의 기타반주와 노래에 맞춰서 '토요음악회'로 입원 중인 환자분에게 음악을 들려줍니다. 비록 전문 연주자처럼 잘하지는 못하지만 환자 앞에서는 사랑의 마음, 행복한 마음을 듬뿍 담아 열심히 연주합니다.

아픈 사람에게 음악이라니, 힘들어 죽겠는데 음악 들을 기분이 나겠나 싶지만 음악은 모든 상황을 바꾸어 버릴 수도 있고 환자의 감정도 마음 가짐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가사가 주는 메시지, 리듬, 박자, 음악의 분위기, 목소리톤 등 정말 많은 것들의 조합인 노래가 환자분들과 보호자들의 마음에 닿아 눈물도 많이 흘리십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이해 못했던 분들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합니다.

감각 중에 가장 늦게까지 살아 있는 것이 청각이라고 합니다. 의식이 없는 분도 음악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가누지도 못하는 몸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기도 하고, 옛 생각에 눈물이 난다며 노래가 마칠 때까지 조용히 울고 계시기도 하고, 가만히 누워 한 곳만 명하니 바라보고 있는 분이 소리는 못내지만 정확한 입모양으로 또박또박 따라 부르는 경우를 볼 때 음악의 힘은 대단하다고 느끼며 정말 귀한 일을 하는 것 같아 저 또한 감사드립니다.

음악봉사를 하다보면 신자가 아닌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성가곡과 가요를 적절히 섞어서 연주하는데 신자분들에게 성가와 복음성

가를 들려주고, 비신자들은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좋아했던 곡이 있으면 그분과 함께 부르며 음악의 기쁨이나 위로와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 스스로 느끼게 해 드립니다.

저 역시 이러한 시간이 환자분에게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과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불안한 마음보다 행복한 얼굴을 보게 되어 행복하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고맙다고 말할 땐 큰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고향이나, 좋아하는 노래에 얹히 이야기, 좋았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우는 환자분이나 배우자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노래를 빌어서 전달하는 환자분을 볼 때 제 마음도 짠해지기도 합니다.

간혹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이야기했었는데 다음주에 병실이 비어있다든가, 4인실이다 보니 환자분의 컨디션에 따라 듣고 싶은 분과 듣고 싶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어 음악을 들려줄 때 조심스러워져 조용히 불러 드릴 때 힘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호스피스 병실에서는 내 일은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 ‘다음에 해드릴께요’라는 말을 하지 않는데 준비했던 곡이 아닌 즉흥연주로 악보가 구비되지 않은 곡을 원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봉사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은 죽음을 가까이 생각할 때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도 달라지고, 나의 대한 욕심도 버려지고,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살아 생전에 해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다 해드리도록 자식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이 다음 내가 못해 드린 것 때문에 서럽거나 안타깝게 여기질 않을 것 같아 부모님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환자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아프지 않을 때 봉사를 못한 게 후회된다고 하시는데 그분들을 대신하여 내가 음악을 통해 삶의 마지막 길을 동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라 감사할 따름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곡을 자주 불러 드리는데 몸과 마음이 지쳐 고통 중에 있는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음악을 통해 얻기를 바라고 언제나 저희 봉사자들이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음악봉사를 통해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행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로 하여금 제 자신이 도리어 더 큰 기쁨을 얻는다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감사를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눌수록 더 커지는 음악의 힘을 믿기에 언제나 희망을 연주하겠습니다.



## 마지막 소원

### The Last Wish



호스피스 일을 시작한지 이제 1년이 좀 지나간다. 그 동안 많은 환자들을 지켜보았고, 그들로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들은 것보다 더 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어김없이 담당의인 나에게 이런 말을 전네곤 했다.

-나 바닷가에서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  
-내가 살던 집에 가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갈 수 있을까?  
-아이들과 잠깐 외출할 수 있을까?  
-회가 먹고 싶어.  
-바다 저 멀리 넘어가는 석양을 보고 싶은데…  
꼭 이런 바램을 말하는 시기는 이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가 많았다. 혈압이 떨어지고, 혼자 걷지 못하고, 호흡이 가파서 산소발생기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순간이 있었다. 첫 말기암 환자를 진료하고 얼마 되지 않아 그를 만났다. 그는 30대 젊은이였고, 통증이 조절되지 않아 많이 힘들어 했다. 장기간의 병동생활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회진하던 어느 날, 그는 집에 가고 싶다고 했다. 자신이 살았던 방과 집을 보고 싶어했다. 워낙 통증이 심했고, 그로 인한 체력소진이 심했기에 선뜻 퇴원을 동의해 줄 수 없었다.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는 오늘을 살고 있었기에, 그리고 장기간의 투병으로 인해 그의 어머니도 많이 지쳐 있었다. 극심한 통증과 오직 현재만 허락된 환자의 퇴원. 이 일은 호스피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의사가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일이었다. 며칠 동안 그와 그의 어머니와 의논한 끝에 퇴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어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주의할 점들을 이야기했다. 혹시 통증이 조절되지 않으면 바로 입원하기로 하고 말이다. 퇴원 후 2주가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가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다는며 진통제를 증량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가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를 좀 말려달라고 했다. 그에게는 투병 초기부터 그의 곁에서 지켜주고 있는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그와 제주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오래 전부터 계획을 했지만 하지 못한 제주도 여행이라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가 혹시 제주도에서 죽음을 맞이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그를 한번 만나보고 설득할 수 있으면 그려마 하고 어머니를 귀가시켰다.

그로부터 또 일주일쯤 지난 날, 그가 외래로 왔다. 통증은 있

었지만 그의 얼굴은 밝게 웃고 있었다.

-얼굴 좋네~  
-그럼요~~ 여행을 가야 하니까요.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는데 우짜지?  
-그래도 가고 싶어요. 마지막 여행이니까요.  
-꼭 갈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노?

나는 그의 마지막 여행을 막을 수 없었고, 만약 통증이 시작되면 준비해간 약을 먹고, 안되면 제주도에서 갈수 있는 큰 병원의 위치와 주의사항들을 알려주었다. 혹시 몰라 급한 일이 생기면 전화하라는 말도 해 두었다. 그가 제주도를 여행하는 기간 내내 나는 핸드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아무일 없이 1주가 지나고 2주일이 다가올 무렵 그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가 입원하고 싶다고 했다. 많이 아파한다고 했다. 재입원 후 아픈 모습이지만 웃음을 짓는 그를 보며 안도감이 느껴졌다.

-여행 재밌드나?  
-좋던데요. 가길 잘했어요.  
-통증은 어떻노?  
-아프기는 한데 견딜 수 있어요.  
이후 얼마되지 않아 그는 가족들의 품을 떠났다. 때때로 그는 나와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여행을 이야기하곤 했다.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져 기쁘다고 했다.

아마 그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인터넷에서 Ambulance Wish Foundation에 관한 기사를 보았다. 네덜란드에서만 들어진 이 재단은 자원봉사자들이 앰뷸런스를 타고 말기 환자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다고 한다. 자신이 키우던 기관을 보고 싶다는 수의사의 꿈, 어린 시절 먹었던 아이스크림을 먹고자 했던 할머니, 손녀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다는 이 등 수많은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있다.

그냥 한번 상상해 본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단체가 하나 정도 있으면 어떨까!



강동일

비뇨기과 · 가정호스피스 과장

## 나의 아름다운 사람 정필이에게

당신에게 글을 쓰는 것이 젊은 시절 당신과 연애할 적 몇 번 말고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소.

당신과 함께 내가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도 벌써 2년 반이 되어가는 것 같소. 지난 2년 반이란 시간 동안 항상 당신이 내 곁에서 열성적으로 간호를 해 주는 덕분에 두려운 암이지만 잘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소. 당신의 수고와 노력이 우리 가족을 화목하게 이끌면서 우리 식구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소. 오늘은 아침부터 왜 이리 눈물이 자꾸 흐르는지……

그리고 오늘은 당신에게 한마디 하고 싶소.

난 당신을 사랑하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내가 살아있는 그날까지.

– 당신의 편 윤이주

## 사랑하는 내편에게

대학 신입환영회에서 만나 아주 씨, 아주 오빠, 자기야, 빛나 아빠, 더 늦기 전에 부르자며 올해 처음 부르기 시작한 여보까지 이렇게 호칭이 바뀌면서 함께 해 온 우리.

어느날 문득 일을 마치고 온 나에게 오랜만에 편지를 썼다면 견네 준 편지에 순간 좀 당혹스러웠어. 그날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어 고통스러워하다 나에게 글을 쓰고 싶었다며 사랑하고 고맙다 그렇지만 좀 더 나를 위해 고생해 달라던 당신. 그 글을 읽고 내가 불쑥 던진 말은 “답장 해야 돼?”였지. “아니, 안해도 된다”하는 말에 여태껏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자다가 깨서 당신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답장을 해야겠다 싶었어.

나는 당신이 아파서 옆에서 수발을 해도 그게 고생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당신이 고생한다고 하니 그때는 오히려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 이런 말을 하고 이 사람이 불쑥 내 곁을 떠나 갈려나 싶어서…

우리 참 재미있었고 잘 살아왔는데 왜 이런 병이 걸렸는지 자학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러다가 내가 아픈 거 너희 둑까지 다 가져 갈테니 너희는 아프지 말고 건강해라.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해 놓고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바에는



독약을 먹고 빨리 갔으면 하던 말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나는 하느님께 당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프게 안해줬으면 좋겠다. 기도했고 당신한테는 이렇게 아프더라도 내 곁에 우리 가족에게 오래오래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당신이 너무 힘들면 보내 준다고 말했지. 점점 힘들어하는 당신을 보며 이제는 정말 해어져야 하나 싶어서 눈물 안나게 해달라 했던, 그럴 수 있다고 믿었던 게 소용없이 눈물이 난다. 여보…

남은 식구들 편안하게 살았으면 한다고 이사를 하게 해줬고 창회가 공군 제대하여 학교에 복학했고 빛나도 좋은 직장에 취직했는데 이게 모두 당신이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었고 잘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야.

여보! 한 이불 속에 없어도 손을 잡아보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하느님과 같애.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란 거 아니니까…

언제나 당신을 기억하고 함께 함을 약속할게. 같이 사는 동안에도 사랑했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거야.

내편이어서 고마워, 내편이어서 사랑해.

– 당신의 여자 문정필

-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의 이모저모

##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의 이모저도

**추석 이벤트 : 송편나누기&게임(투호, 고리던지기)&선물제공 | 10월 2일**

한가위 대명절을 맞아 병동에서도 즐거운 시간을 마련, 환자와 가족은 물론 병동의 팀원들도 행복한 동행자로서 가족적인 분위기를 누리며 투호, 고리던지기를 하면서 웃음과 즐거움, 활력을 가지며 풍요로운 한 가위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다.



**2017년 사별가족 만남의 날 | 10월 24일 10:30~15:30**

연중 사별가족 모임 중 연간 사별가족을 모두 초대하는 자리로 사별가족 41분과 팀원, 자원봉사자, 병원관계자들이 함께하는 성대한 시간이 되었다. 추모미사와 뷔페 식사, 공연 등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격려, 떠나신 분과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추억을 공유하며 살아 있는 우리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제8회 사진전 | 10월 16일~24일**

본원의 1층 로비와 10층 완화의료센터에 호스피스 관련 30점의 사진을 전시, 호스피스센터에서의 환자와 보호자들의 따뜻한 모습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의 삶의 의미와 소중함을 느끼며, 이벤트로서 관람고객들에게 즉석사진을 제공하여 추억 만들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요법 시간  
안내



요일	시간	내용	요일	시간	내용
월	10:30	오카리나 연주&기타와 노래 / 격월	목	10:30	가족교육 / 매주
	10:30	여성중창단노래 / 격월		14:30	종이공예 / 월1회
	10:30	창, 한국무용, 오카리나연주 공연 / 월1회	금	08:30	하모니카연주 / 매주
화	10:30	리본공예 / 월1회		10:30	영양관리교육 / 월1회
	14:30	茶요법 / 매주	토	10:30	색소폰연주 / 월1회
수	10:30	원예요법 / 1, 3, 5주		11:00	푸른사랑음악회 / 월1회
	10:30	아코디언연주 / 2, 4주		13:30	미술요법 / 매주
	14:30	명상요법 / 매주		14:30	플루트&기타 연주와 노래 / 1, 3, 5주
수시		생일, 축일, 기념일, 이벤트, 사진요법 추억 만들기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NEWS

1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심화재교육

호스피스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은 월별로 시행하였으며 내용은 ‘친절교육, 스트레스관리, CPR, 영적돌봄, 사별가족관리, 피정, 감염관리, 가정호스피스’에 대한 주제로 분야별 내·외부 강사를 통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자질 향상과 소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로 2월, 3월, 4월, 5월, 7월, 9월 피정과 10월, 11월에 있었다. 교육 후에는 미사참례로 영적고찰과 지지를 받으며 자신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 자원봉사자 피정 (9월18일)

지난 9월 18일(월) ‘이런 믿음을’ 주제로 밀양의 맑은하늘 피정의 집에서 실시된 자원봉사자 피정은 자원봉사자 27명이 참석, 일상은 물론 봉사자의 자리에서도 잠시 비켜나 자신을 관조하며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저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수녀님의 말씀과 더불어 피정 강론과 자연이 주는 감동도 배가 되어 감사의 시간이 되었다.



2

### 제5회 호스피스의 날 행사 김영희(루시아)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지난 10월 18일(수) 국립임센터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완화의료주간에 개최된 호스피스의 날 행사에 참석하였다. 본원의 우수자원봉사자로 김영희, 김진순, 이영숙, 장해경, 허정미가 선정되었으며 그 중 김영희 봉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이 날은 호스피스의 곳곳에서 수고한 이들을 격려하고 돌아보는 좋은 자리가 진행되었다.

##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후원회 가입안내

호스피스 후원회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사무실의 Fax, 전화, 우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스피스 후원회원에게는 호스피스 소식지를 발송해 드리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의 각종 행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 후원기금 참여신청서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 부산가톨릭의료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후원하시는 모든 기부자 분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는 기부약정의 효력으로 영구 보관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동의서명 : \_\_\_\_\_

금액 : 일금 원 (₩ )

일시기부 :

정기기부 : 매월 원 회(년)

※ 납부안내 :  무통장 입금

· 예금주 :

· 은행명 :

· 계좌번호 :

자동이체(CMS)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금주 :

· 은행명 :

· 계좌번호 :

· 동의서명 :

※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후원기금은 소정의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센터에서 펼치는 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가톨릭 의료기관의 이념실천 사업을 지지하며 위와 같이 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약정인

(서명)

신청서 보내주실 곳 48575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32번길 25-14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후원회 관련 문의사항 Tel 051 933 7133 Fax 051 932 8636

##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의 이용안내

본원 입원 환자



완화의료팀  
소속의사  
진료

완화의료팀  
병동면담  
및 안내

입원

타 기관 환자

타 의료기관  
의료 정보

완화의료팀  
소속의사  
진료

완화의료팀  
병동면담  
및 안내

입원

※ 구비서류 ① 의사소견서 혹은 진단서(1개월 이내)

② 최근 검사자료(CD 및 영상 판독지, 조직검사 결과지)

③ 현재 복용중인 약 처방전

④ 의무기록사본 등

진료시간 및  
진료과 안내

- 예약 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 진료예약 : 051) 933-7087
- 평일 : 오전 9시 ~ 오후 5시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2시 30분 (일요일, 공휴일은 휴진)
- 입원형 호스피스 : 혈액종양내과 진료 051) 933-7253
- 가정형 호스피스 : 비뇨기과 진료 051) 933-7861

진료상담  
및 문의

- 입원형 : 051) 933-7133
- 가정형 : 051) 933-7969
- F A X : 051) 932-8636

## |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진료시간표 |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혈액중양 내과	혈액중양 내과	혈액중양 내과	혈액중양 내과	혈액중양 내과	—
오후	혈액중양 내과	혈액중양 내과	혈액중양 내과	혈액중양 내과	혈액중양 내과	—

※ 단, 가정형 호스피스 진료는 비뇨기과로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형 호스피스 상담 T. 051) 933-7969

완화의료센터 입원 상담 T. 051) 933-7133

완화의료센터 입원 진료예약 T. 051) 933-7087

## | 찾아오는 길 |



- 서면방면 20, 24번
- 부산역방면 22, 27번
- 동래방면 131번
- 해운대방면 39번
- 마을버스 남구2, 2-1, 8번
- 부산성모병원 정류소 하차(셔틀버스 운행)



부산가톨릭의료원  
BUSAN ST. MARY'S HOSPITAL  
부산성모병원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32번길 25-14  
T 051 933 7114 F 051 932 8600